

# 20분 뛰고 1도움... 손흥민 3번째 '10-10 클럽'

FA컵 위컴전 후반 교체 투입 3번째 골 도와... 올 시즌 16골 10도움  
토트넘 4-1 역전승 에버턴과 16강 대결... 30년만의 우승 도전 순항

손흥민(29)이 시즌 10호 도움을 올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챔피언십(2부 리그) 최하위 팀인 위컴을 제압하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에 올랐다.

토트넘은 26일(한국시간) 영국 하이 위컴의 애덤스 파크에서 열린 2020-2021시즌 FA컵 4라운드(32강)에서 당귀 은돔벨레의 멀티골을 앞세워 위컴에 4-1 역전승을 했다.

손흥민은 후반 28분 교체 투입돼 2-1로 앞선 후반 42분 은돔벨레가 넣은 팀의 3번째 골을 도와 역전승에 일조했다.

시즌 10호 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 16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앞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2골 6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예선포함)에서 3골 3도움, 카라바오컵(리그컵)에서 1골을 올린 손흥민은 이날 FA컵에서 도움 1개를 추가했다.

아울러, 올 시즌 공식전 골과 도움 모두 10개를 넘겨 '10-10 클럽'에 가입했다.

손흥민이 10골-10도움을 넘긴 건 2017-2018시즌(18골·11도움), 2019-2020시즌(18골·12도움)에 이어 3번째다.

위컴을 힘겹게 제압한 토트넘은 1990-1991시즌 이후 30년만의 FA컵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토트넘은 내달 11일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턴을 상대로 대회 16강전을 치른다.

위컴은 4부 리그에 있던 2016-2017시즌 대회 32강전(3-4 패)에 이어 또 한 번 토트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토트넘은 오는 29일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한 계단 위에 있는 4위 리버풀과 맞대결을 앞두고 그간 의존도가 높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완전히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승리를 따냈다.

토트넘의 조제 모리뉴 감독은 2부 리그 최하위

(24위) 위컴을 상대로 '1.5군'을 가동했다.

손흥민과 케인,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 은돔벨레 등 핵심 자원이 벤치에 앉았고 개러스 베일, 에리크 라멜라,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등 그간 경기에 자주 나오지 못한 선수들이 대거 선발로 나섰다.

치열한 허리 싸움 끝에 나온 선제골은 위컴의 차지였다.

전반 25분 위컴 스트라이커 우체 익피주가 토트넘 수비수 토비 알데르바이르와 경합을 이겨내고 땅볼 크로스를 넘긴 것이 프레드 은예디마의 문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돼 1-0이 됐다.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함께 수비수 탕강가를 빼고 미드필더 호이비에르를 투입하며 중원에 힘을 줬다.

그러나 좀처럼 역전골이 나오지 않자 모리뉴 감독은 후반 13분 케인을, 23분 손흥민과 은돔벨레를 차례로 투입했다.

기다리던 골은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의 발끝에서 나왔다.

윙크스는 후반 41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공이 흘러나오자 차분하게 원반 감아차기 중거리 슈팅을 위컴 골대에 꽂았다.

역전을 이뤄낸 토트넘은 막판 2골을 더 넣으며 확실하게 승리를 매듭지었다.

앞서 후반 35분 은돔벨레의 킥백을 허공으로 날려 보내며 아쉬움을 삼킨 손흥민이 후반 42분 은돔벨레에게 완벽한 도움을 제공했다.

왼쪽을 돌파해 들어간 뒤 골지역 정면에서 도사리던 은돔벨레에게 패스를 내줬고, 은돔벨레는 눈 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3-1을 만들었다.

은돔벨레는 후반 48분에는 골지역 왼쪽에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왜기골까지 넣어 멀티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 '임대설' 황희찬 웨스트햄 가나

영 언론 "모이스 감독, 할러 대체 후보로 황희찬 임대 방안 강구"



독일 프로축구 RB 라이프치히에서 임지를 다지 못하고 있는 '황소' 황희찬(25)의 마인츠 임대설에 이어 이번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임대설이 대두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25일(현지시간) "웨스트햄의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이 세바스티안 할러를 대체할 새로운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황희찬을 1월에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독일 빌트지를 인용해 "황희찬이 라이프치히에서 이번 시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지난해 7월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에서 이적한 이후 9경기를 뛰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이프치히 구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 RB라이브는 지난 23일 마인츠 임대설을 보도하는 등 라이프치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황희찬을 두고 다양한 임대설이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데일리 메일은 "웨스트햄은 황희찬의 단기 임대를 원하는 팀 가운데 하나"라며 "웨스트햄은 최근 스트라이커 할러를 아약스(네덜란드)로 2200만 파운드(332억원)에 이적시키면서 새로운 공격자원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광주 FC '랜덤박스' 구매하고 기부도 하고

지난 시즌 유니폼·기획상품 판매

광주FC의 '랜덤박스'를 구매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광주는 2020시즌 유니폼과 각종 기획상품을 담은 20만원 상당의 랜덤박스를 7만원에 판매한다. 수익금은 구매자명으로 전액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원하면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오는 31일까지 광주FC 공식 쇼핑몰(<https://smartstore.naver.com/gjfc>)에서 판매된다.

아이디 1개 당 1개씩 구입할 수 있으며 매진되면 이벤트가 조기 마감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마트, 1353억에 SK 인수

야구단 3월 출범... 정용진 부회장 "유통+스포츠 수년전부터 준비"

SK텔레콤이 자본 100%를 출자한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매각하는 이유를 "사회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26일 SK텔레콤과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업 간 정식 양수양도 계약일은 2월 23일이다.

이로써 2000년 쌍방울 레이더스를 인수해 창단한 SK 와이번스는 21년 만에 사라지고, 이마트 브랜드 야구단이 3월 새로 출범한다.

인수 가격은 주식 1000억원과 야구연습장 등 토지·건물 352억8000만원 등 총 1352억8000만원이다.

SK텔레콤이 야구단 운영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한 와이번스를 매각하는 이유에 지대한 관심이 쏠아졌다.

SK텔레콤 측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매력적인 인수 제안을 해왔고, 유통기업의 장점을 살리면 야구단을 더 잘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16년 8월 스타

필드 하남 개점을 앞두고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라며 체험형 유통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SK 와이번스를 전격 인수해 행동으로 옮겼다.

신세계그룹은 "수년 전부터 야구단 인수를 준비해왔다"며 "몇 구단과 접촉했지만, SK와 급속도로 인수 논의를 매듭지게 됐다"고 전했다.

어떤 구단인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야구계는 모기업이 재정난에 처했거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와 접촉한 것으로 관측한다.

신세계그룹은 "야구팬과 이마트 소비자층이 겹쳐 야구단 운영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무팀을 가동해 KBO 가입신청, 팀명과 엠블럼 제작 등을 3월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월 1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의 강창학 구장에서 동계훈련을 시작하는 와이번스 선수단은 새 유니폼이 나오기 전까지 'SK' 그룹명이 박힌 유니폼을 입는다. /연합뉴스

## "선수 연봉조정 승리, 유의미한 진일보"

프로야구선수협 입장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양의지)가 선수의 손을 들어준 KBO 연봉조정위원회 결정을 '유의미한 진일보'라고 환영했다.

선수협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5일 발표된 KBO 연봉조정위원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선수의 권리를 존중하고 결과를 인정한 KT 구단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연봉조정위는 25일 KT구단과 투수 주권의 연봉을 조정했다.

KT는 2021년도 연봉으로 2억2000만원을, 주권은 2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연봉조정위는 선수 측 요구가 합당하다며 주권의 2021시즌 연봉을 2억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연봉 조정위에서 선수가 승리한 것은 2002년 류지현(현 LG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19년 만의 일이다.

선수협은 "이번 연봉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단지 선수 한 명의 연봉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도 확립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KBO가 야구발전과 공정한 제도 확립에 고민하고 있는 만큼 선수협도 꾸준히 대화하며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준 연봉 조정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런 유의미한 진일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선수와 구단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